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국채금리 상승에도 빅테크 강세에 미국증시 상승

- 미국증시 상승: 다우 +0.53%, 나스닥 +1.00%
- 마이크로소프트 이어 아마존..AI 인프라 투자 확대 우려 완화
- 연준 내 '금리 동결' 반대 3인 "인플레이 우려" 한 목소리

Summary

미국증시 상승

현지시각 7월 31일 금요일 미국 증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전일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아마존이 시장의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다소 완화한 가운데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 마감. 반도체주가 전일의 급등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었고 국채 금리 상승의 여파로 투자심리 전반이 호조를 보인 것은 아니었으나 지수 내 비중이 높은 빅테크 종목들이 대체로 크게 상승한 영향으로 7월 마지막 거래일 지수는 상승.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53% 상승해 52,485.03에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는 0.70% 상승한 7,489.72에 거래를 마칩. 나스닥 지수는 1.00% 상승한 25,373.85에 거래를 마감했고 나스닥 100은 0.6% 상승 마감. 다만 국채 금리 상승은 중소형주 투자심리에 비교적 더 부담스럽게 작용해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지수는 0.5% 하락 마감.

(다우 +0.53%/ S&P500 +0.70%/ 나스닥 +1.00%/ 러셀2000 -0.50%)

주간으로는 다우지수가 한 주간 1.04% 상승해 4주만에 반등했고 S&P500 지수는 3주만에 반등, 한 주간 1.05% 상승함. 나스닥 지수는 한 주간 1.59% 상승, 역시 3주만에 반등.

이로써 지난 7월 한 달 다우지수는 0.32% 상승해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었음. 다만 S&P500 지수는 0.13% 하락해 2개월째 하락세를 이었고, 나스닥 지수도 한 달간 3.20% 하락해 2개월 연속 하락.

전일은 마이크로소프트, 이날은 아마존

이날 시장 상승은 전일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아마존을 앞세운 빅테크 기업들의 강세에 힘입은 바 컸음. 아마존은 전 거래일 마감 이후 전분기 실적을 발표했으며 이에 시간외 거래에서부터 10% 이상 급등. 아마존은 전분기 핵심 수익원인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웹서비스(AWS) 매출이 1년 전에 비해 36.7% 급증한 영향으로 전체 분기 매출이 사상 처음 2천억 달러를 돌파.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43% 증가했고 순이익은 엔트로픽 투자에 따른 이익까지 반영, 지난해의 3배가 넘는 626억 2천 100만 달러를 기록. 이에 EPS는 5.75달러로 시장 예상 1.82달러의 세 배를 넘김. 연간 자본지출 전망은 기존 2천억 달러에서 2천 200억 달러로 10% 상향 조정했고 잉여현금흐름은 76억 400만 달러 적자로 전환. 투자는

늘고 잉여현금흐름은 고갈된 모습은 앞서 실적을 발표한 메타 플랫폼스의 그것과 유사했지만 투자가 늘어나는 만큼 사업에서의 수익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역시 앞서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와 유사, 시장의 ROI(투자수익률)을 갉아먹는 Capex(자본지출) 확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킴.

AI 연구원 출신 레오폴드 아센브레너의 헤지펀드 '시추에이셔널 어웨어니스'가 청산되며 상장주식 포트폴리오 대부분이 시타델로 매각됐다는 소식도 한 고비를 넘겼다는 인식으로 시장 상승에 힘을 보탬.

연준 내 '동결 반대' 3인방 "인플레이 우려"

7월 FOMC에서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3명의 연준 위원-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와 로리 로건 델러스 연은 총재, 그리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이 이날 관례대로 성명을 통해 금리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의 배경을 설명함.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높은 인플레이가 지속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를 낮추기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며 이번 회의에서의 금리 인상 주장의 근거를 소개. 로리 로건 델러스 연은 총재 역시 단시일 내 완전한 조치로 대응하는 것이 이후 더 급격한 조치의 필요성을 줄여준다고 말했으며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총재도 고용과 인플레이 상황에 대한 추가 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정책 긴축을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편이 낫다고 말함. 이들 모두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결국 통화 긴축으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은 시기의 문제 라는 시각을 공유하고 있음을 이날 발언으로 확인. 이는 국채 금리 상승세에 힘을 실었으며 금리의 상승은 주식 시장 내 전반적 투자심리의 완화를 제한함.

이번주 AMD, 스페이스X 등 실적 발표..고용보고서도 주목

주요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지난주 중 대체로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주에는 스페이스X의 상장 후 첫 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 이외 AMD와 팔란티어, 샌디스크, 웨스턴디지털 등 주요 AI 관련주들이 지난주 하이퍼스케일러 실적 발표 이후 그 아랫단에서 얼마만큼 버텨주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줄 것으로 보임. 기술주 이외에도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등의 비만 치료제 관련 제약주, 그리고 월트 디즈니 등의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

한편 7월 FOMC 이후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장기 국채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주 발표될 고용지표에 대한 시장 관심도 적지 않을 전망. 오는 7일 발표 예정인 미국의 7월 고용보고서에서 7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8만 8천개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 이는 전달의 5만 7천개 대비 크게 개선된 것이나 연준의 목표치인 월 10만개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다만 예상 수준 정도라면 금리 동결 기조 유지에는 충분한 수준이라는 평가. 만일 고용 수치가 예상을 크게 상회할 경우 이는 연준의 금리 인상 명분에 힘을 실는 데이터가 될 것으로 보임.

특징종목

소재(-2.71%)와 유틸리티(-0.74%), 부동산(-0.68%), 헬스케어(-0.55%) 등의 업종군이 하락. 아마존이 포함된 재량 소비재(+6.07%) 섹터가 급등. 이외 알파벳과 메타 플랫폼스 등의 빅테크 종목이 포함된 통신 서비스(+4.60%) 섹터의 상승 폭이 두드러짐. 산업재(+0.79%), 에너지(+0.78%) 섹터도 상승.

빅테크 데이, 그런데 애플은..

빅테크주 전반이 상승세로 지수를 이끌. 반도체주 전반이 오른건 아니지만 엔비디아(+2.93%)는 3% 가까이 상승하며 나흘만에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했고, 구글 알파벳(+6.73%)과 메타 플랫폼스(+3.28%), 아마존닷컴(+15.32%), 마이크로소프트(+3.02%), 테슬라(+0.76%)도 상승.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경우 기대 이상의 실적과 클라우드 사업부를 중심으로 한 수익성 확대에 대한 기대가 마이너스 잉여현금흐름과 자본지출 확대에 의한 우려를 불식시키며 여타 AI 인프라 관련주에 대한 투자심리까지 개선시킴. 메타 플랫폼스는 부진한 실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대되고 있는 Capex 투자에 대한 걱정으로 전거래일까지 11거래일 연속 하락했지만 이날 무려 12거래일만에 소폭 반등. 다만 최근의 낙폭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수준의 반등으로 보기는 어려움.

한편 최근 하이퍼스케일러를 중심으로 그간 크게 확대해온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담을 털어가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AI 투자와 함께 부각돼온 애플(-7.35%)이 이날은 크게 하락. 전 거래일 마감 이후 발표한 실적이 서비스 매출과 중화권 매출을 중심으로 부진한데다 공급망 병목으로 인한 현재 진행 분기 매출 부진에 대한 전망까지 제시한 영향. 이 날 하락으로 애플 시가총액은 4조 5,370억 달러 수준으로 회귀했으며 4조 8,581억 달러까지 시가총액을 회복한 엔비디아에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줌.

엔비디아와 관련해서는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 AI가 알리바바(+5.10%) 그룹과 함께 엔비디아 칩 약 2만개를 활용하는 컴퓨팅 계약을 맺었다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있기도 했음.

마감 후: 아마존, 애플 실적

마감 이후 아마존닷컴(+3.90%)이 전분기 실적을 발표. 매출이 전년 대비 20% 성장한 2,006억 달러를 기록해 시장치였던 1,964억 달러를 웃돌았는데 특히 클라우드 AWS 매출이 전년 대비 37% 급증한 422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 405억 달러를 상회. 영업이익 역시 같은 기간 43% 성장해 시장 예상치 235억 3,000만 달러를 상회, 275억 달러로 집계됨. AWS의 영업이익률은 39.4%로 시장 예상 33.8%를 대폭 상회. 잉여현금흐름이 -76억 달러로 시장 예상보다 큰 폭 감소했지만 클라우드 중심의 압도적으로 좋은 실적에 현금 흐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져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는 10% 이상 급등.

애플(-1.41%)도 마감 이후 전분기 실적을 공개함. 애플의 회계연도 기준 3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시장 예상을 웃돌았으며 세부적으로 아이폰과 맥, 웨어러블과 홈, 액세서리 매출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지만 아이패드와 서비스 매출은 시장 예상을 하회. 지역별로는 북미 지역 매출이 시장 예상 454억 2,000만 달러를 웃돈 457억 8,000만 달러로 집계됐지만 중

화권 매출이 188억 2,000만 달러로 시장 예상 195억 8,000만 달러에 미치지 못해 여전히 부진. 고마진 서비스 부문 매출, 그리고 중화권 매출 부진에 대한 실망은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짐.

코인베이스 글로벌(+2.18%)도 전분기 매출이 기대를 밑돈 영향으로 시간외 거래에서 약세 전환.

반도체주 선별적 상승

반도체주는 종목별로 차별화된 움직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07% 상승, 전일 8% 급등에 이어 이틀째 상승했지만 오름폭은 미미했고, 종목으로도 엔비디아(+2.93%)는 상승. 이외 마벨 테크놀로지(+2.32%), 웨스턴 디지털(+2.21%),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1.18%), 시게이트 테크놀로지(+0.52%), KLA(+1.38%) 등은 상승. 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5.90%)와 AMD(-1.90%), 인텔(-1.02%), 퀄컴(-2.63%), 램 리서치(-1.58%), 샌디스크(-5.09%) 등은 하락. 앞서 일본 메모리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 홀딩스의 전분기 실적과 현재 진행분기 가이드스 모두 시장 예상을 하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도 마이크론 등 메모리/스토리지 관련주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침. AMD와 샌디스크 등은 이번주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감이 주가에 하락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임.

전일 한국증시에서 장 중 상한가까지 급등한 SK하이닉스(ADR, -3.54%)는 미국 증시에서는 소폭 하락.

이외 특징주

노보 노디스크(-8.73%)는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과 전신 염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제 신약 질티베키마브에 대한 임상 3상에서 위약 대조군 대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소식에 급락.

코인베이스(-10.59%)는 전일 마감 후 발표한 전분기 실적이 암호화폐 시장 위축의 영향으로 기대를 하회. BTIG와 바클레이즈 등이 목표주가를 하향.

전기설비 서비스업체 IES홀딩스(+30.27%)는 예상을 웃도는 분기 실적과 함께 2:1 주식 분할을 이사회에서 승인했다는 소식에 급등.

바이오 기업 레플리온 그룹(+107.02%)은 미국 FDA 자문위원회가 회사의 흑색종 치료제 후보물질 임상 결과가 임상적으로 의미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급등. 웨드부시는 이 소식 이후 투자 의견을 기존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

스페이스X(-3.41%)는 상장 직후 고점 대비 절반 이하로 하락했지만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음. 스페이스X는 이번주 상장 후 첫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8월 첫 주부터 수억 주 규모의 보호예수 물량 해제를 앞두고 있음. 이에 공매도 포지션이 유통 가능 주식 수의 30%를 상회하는 등 수급이 크게 악화되고 있음.

로블록스(-26.85%)는 회사가 단기 소비에 치중한 게임 대신 장기 이용자 유지율이 높은

게임을 우선 배치하는 형태의 추천 알고리즘 개편을 시행한 이후 예약 매출이 부진했다고 설명했으며 이로 인한 여파는 현재 진행 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가운데 급락.

연속 혈당 측정 시스템 제조사 텍스컴(+11.95%)이 실적 발표 이후 급등. 전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 특히 영업이익률이 24.3%까지 상승, 전년 동기 18.4% 대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연간 매출 전망치 역시 상향 조정.

글로벌 정유 및 에너지 기업 엑슨 모빌(-0.97%)은 예상을 소폭 하회하는 실적에 하락.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트럼프 으름장에 국제유가 상승

국제유가는 1%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그들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며 그들과 어느 시점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겠지만 현재 그들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는 상태”라고 말한 것이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이어져 국제유가 상승 요인이 됨. 이란과 미국은 지난 29일부터 다시 교전에 돌입했으며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역시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의 사우디에 대한 공격과 함께 불안정한 상황.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29% 상승한 배럴당 84.67달러에 마감했고 브렌트유 9월물도 1.22% 상승한 배럴당 90.12달러에 마감. 국제유가는 WTI 기준 7월 한 달 22% 가량 급등.

금가격은 국채금리 상승이 지속되자 반락해 온스당 4,100달러 초반대에 마감. 은값도 온스당 57달러 수준으로 하락.

국채금리, 중장기물 중심 상승세 유지

미 국채 금리는 중장기물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사흘째 지속. 이번달 FOMC에서의 금리 동결 결정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연준 위원 3명이 이날 반대표를 던진 이유를 공개했는데, 이들 모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으며 이는 FOMC 이후 그렇지 않아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추가 상승 요인이 됨. 이날 발표된 유로존 7월 소비자물가 예비치가 대체로 시장 예상을 상회한 것도 독일 국채 금리 상승에 이어 미 국채 금리 상승으로 반영됨. 2년물 국채 금리는 4.5bp 상승한 4.2912%를 기록, 10년물 국채 금리는 6.1bp 상승한 4.7347%를 기록. 30년물 국채 금리는 5.9bp 상승한 5.2724%를 기록. 이날 30년물 금리는 장 중 5.284%까지 상승해 지난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으며 10년물 금리는 4.7% 중반대까지 상승해 지난해 1월 이후 최고를 기록.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오는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60% 중반대로 가격에 반영.

엔화 매수 개입 경계..달러 가치는 보합

미 달러화 가치는 미 당국의 엔화 매수 개입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자 장 중 국채 금리 상승에 따라 커졌던 강세 압력을 상쇄하며 보합권에 마감.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엔화 강세 영향으로 100선을 넘기기도 했지만 전일 대비 소폭 추가 하락한 99.9 선에 마감.

엔화는 장 초반 160엔 중반대까지 다시 상승하며 전일의 엔화 가치 급등세를 되돌리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후반 부각된 미 당국의 엔화 매수 개입 가능성에 다시 강세로 방향을 틀어 전일 마감가 대비 0.167엔 추가 하락, 159.18엔에 마감.

전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 거래에서 1,424.0원에 마감한 달러-원 환율은 뉴욕 차액 결제 선물환(NDF) 시장에서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0.50원)를 고려하면 19.40원 상승, 1,442.90원을 기록.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